

# '17세기 불교 조각 양식' 사료적 가치 높아

임실 신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 및 대좌,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임실군 관촌면 신흥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불 및 대좌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임실군은 신흥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삼존불 및 대좌'가 지난 3일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1652년 신흥사 대웅전 건립 당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조각 유산으로,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불상과 제화갈라보살이 배치된 삼존불 형식을 갖추고 있다.

비록 최초 조성 당시 발원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무경집(1738)'과 '운수지(1730)' 등 문헌 기록을 통해 1619년 신흥사 창건 이후 대웅전 건립과 함께 다수의 목조 불상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본존불 좌대에 남아 있는 목서 기록에는 1743년 개금 당시 불사에 참여한 발원자와 제작자, 시주자 등이 명확히 남아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해당 불상은 장방형 얼굴과 법의 착의 방식, 섬세한 옷주름 표현 등 17세기 전반 불교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각승 청허, 현옥, 현진, 수연 계열 작품과 유사성이 높아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 관촌면 신흥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불 및 대좌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또한 1743년 개재와 개금 작업에는 태원, 명조, 상정, 각심 등 18세기 불교 조각계를 대표하는 장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까지 보존 상태 역시 양호해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18일 '소리관' 명창 무대

전북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왕기석 명창' 미산제 수궁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충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2026 '소리관' 명창 무대의 첫 공연으로 왕기석 명창의 미산제 수궁가를 선보인다.

전북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 고수 장주리와 함께 미산제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판소리의 묘미를 들려 줄 예정이다.

미산제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를 바탕으로 전승된 소리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자리와, 이를 피로 벗어나는 토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학과 풍자, 긴장과 이완이 어우러지며 판소리 특유의 극적 재미를 전한다.

예매 및 문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이나 카카오톡 채널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9)로 가능



하며, 공연은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소리꾼 공개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2026년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설 차세대 소리꾼을 오는 20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은 판소리 다섯바탕(적벽가,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각 바탕별 한 명씩 총 5인을 선발해, 각각 60분 이상 완창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공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참가 자격은 1990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이며, 소리축제 일정 참여가 가능하고, 6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한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20일 오후 3시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15분 이상 30분 이내 소리 녹음 음원 파일을 이메일(scriprogram5@sofestiva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제출 음원을 기반으로 판소리 전문가들의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8일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5인에게는 출연료와 공연을 위한 무대, 음향, 홍보 지원이 제공되며, 2026 소리축제 기간 동안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지역 기반 가족 공동체 문화모델 제시

부안군문화재단, 관계를 잇는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부안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가족 공동체 문화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명인 '가가호호'는 '가족이 함께할 때 더 큰 즐거움과 웃음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느슨해지기 쉬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예술놀이 부모살롱 △함미함비 동시학교 △이웃가족 초록집밥 △춤추는 바디랭귀지 △초록은 아직 살아 있다 △잘 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등 총 6개의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각·문학·신체·심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해 서로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관계를 다시 잇는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혈연 중심의 틀을 넘어 '확장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시니어, 1인 가구, 부모·자녀 등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관계의 결을 고려해 대상을 설정하고, 단절을 완화하고 연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한편, 가가호호 프로그램 중 '이웃가족 초록집밥(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수업)'은 오는 4월 하반기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 5일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에서 현장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 남원시, 광주서 '제96회 춘향제' 홍보

포토존·이벤트·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제96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 5일 오후,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에서 대대적인 현장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휴일 오후 소풍을 즐기기에 적합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춘향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축제 마스코트인 '함미·폼미' 인형탈과 함께는 포토존과 MC 김범준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시작된 '추억의 뽕기', '롤렛 이벤트'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줄을 서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팔로우 이벤트와 연계하여 예코백, 소원등 만들기 DIY 키트, 담요 등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며 축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대형 홍보 영상 차광은 춘향제 사전 홍보영상과 '사랑춤' 챌린지 영상을 상영하며 현장의 시각적 주목도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예산 절감과 상생 협력 측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타 부서의 잔여 홍보물품을 활용하고 지역 기업인 '윈푸드'로부터 협찬받은 과자를 이벤트 물품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운용과 지역 경제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